

김혜성, MLB 데뷔 '첫 홈런' 신고

2타수 2안타 맹활약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빅리그 데뷔 첫 솔로포

미국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빅리그 첫 홈런을 신고했다.

김혜성은 15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5 MLB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2안타 1홈런을 기록했다.

김혜성의 빅리그 첫 홈런포다. 올 시즌을 앞두고 다저스와 계약을 맺고 호기롭게 미국 무대에 도전한 김혜성은 시범경기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며 결국 마이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지난 4일 발목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토미 에드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빅리그로 콜업된 김혜성은 매 경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며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두 경기 연속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던 김혜성은 전날 애슬레틱스전에선 8회 대타로 출전해 안타를 만들지 못했으나, 이날은 빅리그 첫 홈런을 비롯해 멀티히트를 폭발했다.

김혜성의 올 시즌 MLB 성적은 11경기 타율 0.360(25타수 9안타) OPS(출루율+장타율) 0.840이다.

오타니 쇼헤이와 앤디 파헤스의 솔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14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애슬레틱스와의 경기 5회 말 동점을 기록하는 1점 홈런(시즌 1호)을 친 후 타구를 바라보며 달리고 있다.

로 홈런으로 팀이 2-0으로 앞서던 2회말 2사에 이날 경기 첫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시속 140km 체인지업을 받아쳐 2루수 앞으로 향하는 땅볼성 타구를 쳤으나, 빠른 발로 1루 베이스를 밟으며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다만 김혜성은 이어 나선 오타니가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나며 득점을 올

리진 못했다.

김혜성은 팀이 2-3으로 밀리던 5회말 선두타자로 다시 타석에 들어섰다.

그는 시속 148km 직구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끝까지 타구를 주시하던 김혜성은 공이 담장을 넘기자 밝은 표정으로 베이스를 돌며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다.

김혜성은 6회말 2사 1루에 미겔 로스가 대타로 들어서며 교체됐다.

그는 수비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4회초 2사 주자 2루 좌중간으로 향한

상대 투이스 유리아스의 타구를 백팬드로 낚아채 재빠르게 1루로 송구하며 상대 안타를 지웠다. /뉴시스

세계 유소년 태권도 대회 한국, 여자부 첫 종합우승

세계태권도카데트대회서
금메달 3·동메달 1 수확

한국 태권도가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일궜다.

여자 대표팀은 14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에서 막을 내린 2025 세계태권도카데트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대표팀은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해 대만(금 1·은 1·동 1), 모로코(금 1·은 1·동 1), 튀르키예(금 1·동 2), 이란(은 2·동 1)을 제치고 여자부 정상에 섰다.

만 12~14세 선수들이 경쟁하는 세계태권도카데트선수권대회는 2014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한국이 이 대회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인 대회와 달리 한국은 세계유소년선수권에서 체력 열세와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2019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대회에서는 여자부에서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다.

하지만 꾸준히 발전을 이룬 끝에 2023년 사라예보 대회에서 종합 2

위를 차지한데 이어 우승까지 달성했다.

대회 마지막 날 한국 태권도의 차세대 주자 이근미(사당중)는 여자 37kg급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이뤘다.

이근미는 신남초 6학년이던 2023년 사라예보 대회에서 여자 144cm급에서 금메달을 딴 바 있다. 당시 체급은 신장과 체중을 반영했으나 이번 대회는 다시 체중 기준 체급제로 돌아갔다.

이근미는 '태권도 가족'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아버지 이태환 관장은 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머니 김미진 사범은 태권도 선수 출신이다. 오빠 이영주(사당중)도 아시아 유소년 대표를 지낸 유망주다.

대회 첫날 여자 29kg급에서 우승한 오윤주(안양 명학스포츠클럽)가 이번 대회 여자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여자부 종합 우승을 이끈 김은현 성서중 코치가 베스트 코치상을 받았다.

한국은 이번 대회 남자부에서는 금메달 없이 은 1개, 동 4개를 획득해 종합 5위에 자리했다.

한편 차기 세계태권도카데트선수권대회는 오는 2027년 그리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시스

부활한 K리그1 전북 현대, 내일 안양과 격돌

부활의 날개를 편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주말 FC안양을 상대로 10경기 무패와 함께 선두 도약을 노린다.

이에 따르면, 전북은 17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양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K리그1 10위에 그쳐 겨우 잔류한 전북은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사령탑 거스 포엣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포엣호 전북은 개막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주춤했으나, 이후 9경기에서 6승 3무의 무패행진을 달렸다.

2위 전북은 승점 25(18득점)를 쌓으며 선두 대전하나시티즌(승점 28·21



득점)를 승점 3점 차로 추격하고 있다.

전북이 이번 주말 안양을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거두면, 대전의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 선두

도약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전은 18일 최하위 수원FC와 대결한다.

과거 '낙공(낙치고 공격)' 축구로 K리그 무대를 휩쓸었던 전북은 포엣 체제에선 수비에 무게를 두고 역습과 세트피스로 득점을 노리고 있다.

해결사는 지난 시즌 수원 삼성을 때

나 전북에 입단한 공격수 전진우다.

이번 시즌 8골로 대전의 스트라이커 주민규와 함께 득점 랭킹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전진우는 안양을 상대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려 득점 경쟁에서도 앞서간다는 각오다.

여기에 장신 스트라이커 폼파노(이탈리아·5골)도 높이에서 강점을 보인다.

물론 상대인 7위(승점 17) 안양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승격팀으로 이번 시즌 강등권에 머물 거란 예상을 깨고 끈끈한 경기력을 자랑한다.

특히 2024시즌 K리그2 득점왕 출신의 모파(브라질)의 발끝이 날카롭다.

안양 유니폼을 입고 처음 1부리그에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전진우 3연속골 도전

나선 모파는 6골로 득점 랭킹 4위에 자리해 있다.

최근 6경기 무패(3승 3무)인 대전도 선두 자리를 쉽게 내줄 생각은 없다.

14일 전북과의 코리아컵 16강전에서 2-3으로 지는 등 최근 흐름이 아쉽지만, 수원FC를 잡고 분위기를 바꿀 작정이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침묵했던 주민규도 전북과 코리아컵에서 골 맛을 보며 예열을 마쳤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김제서 전국 스포츠대회 개최 연이어

문체부장관기 시도대항 축구대회 등… 골목상권에 '활기'

5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연이은 전국대회를 개최하며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김제시 축구전용구장과 축구전용구장에서 개최되었던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시도대항 전국 축구대회'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김제시민운동장에서 진행된 '제24회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시도대항 전국축구대회'에는 17개 시도, 154개팀이 참가해 축구전용구장 등을 뜨거운 열정과 함성으로 가득 채웠고, '제24회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게

이트볼대회'는 16개 시도, 96개팀이 참가해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대회를 즐겼다.

이번 2개 대회를 통해 총 3,000여명에 이르는 선수단과 관계자 등이 김제를 방문해 음식업 및 숙박업 등의 수요 증가로 모처럼 지역상권에 활기가 돌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각종 전국대회 개최로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김제시만의 특색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지역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군

역사를 배우고
생태와 교감하고
자연을 느끼고 체험을 즐기다

봄봄샘과 수분마을
국가생태관광지